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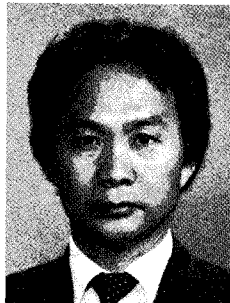
---

# 물가와 생활(중)

---

**도매물가지수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상품을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정 찬 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 라. 도매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국내 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과 경제기획원에서 각각 작성·발표하는 도매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있다.

도매물가지수는 가계소득의 실질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매단계에서 거래되는 생산재 및 완성소비재의 도매가격변동을 소재로 하여 계산한 지수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 즉 소비자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가구의 소비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이 물가의 변동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지수치로서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지수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즉 작성목적, 조사품목의 범위, 가격을 조사하는 단계, 가중치의 결정방법상에서 서로 다르다. 작성품목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상품을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조사하는 품목의 범위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는 대량거래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생산자판매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판매액의 규모가 큰 중요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와 도매물가지수에는 제외되어 있는 학교납입금, 교통요금 등 서비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조사단계에 있어서는 도매물가지수는 국내 시장의 1차 거래단계

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생산자판매 단계의 공장도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반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소매가격 변동을 조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두 지수는 여러 차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변동의 방향이나 폭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매물가지수에서 1980년 기준으로 개편된 지수채택품목 848개 품목 가운데 공산품의 품목수가 777개이고 가중치도 811.2를 점유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243개 품목에 가중치 357.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농림수산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매물가지수에서 제외되어 있는 서비스의 비중이 80품목에 그 비중이 325.2나 된다(표1).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하여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수산품의 비중이 큰 소비자물가지수가 도매물가지수에 비하여 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됨으로 두 지수의 상승율간에 거리가 발생한다.

#### 마. 시장바구니 물가와 지수물가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물가가 변동하는 것을 체험한다. 주부들은 시장바구니에서, 고정봉급자는 점심식단에서 부단한 가격변동을 직접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당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율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보다 훨씬 낮다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장바구니 물가와 정책당국

표 1. 도매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비교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수	가중치	품목수	가중치				
총	지	수	848	1,000.0	394	1,000.0			
산 업 별	농	림	수	산	품	58	172.8	71	317.2
	공	산	품			777	811.2	243	357.6
	광	산	품			13	16.0	-	-
	서	비	스			-	-	80	325.2
용 도 별	원	자	재	및	자	본	재		
	549					621.0		-	-
	소	비	매			299	379.0	314	674.8
	서	비	스			-	-	80	325.2

이 발표하는 지수물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수물가의 경우 여러가지 많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총합하여 평균적 개념으로 물가수준을 나타내는데, 체감물가는 개별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개별 비용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 같지 않기 때문에 품목과 개인에 따라 느끼는 것이 상이하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각자가 처해 있는 경제적 입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물가변동을 민감하게 느낀다.

또한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비행태가 다르면 물가에 대한 반응도 서로 다르다. 예컨대 일정기간 중에 의복, 신발 등 피복비가 많이 오르면 대신 가계용품과 같은 공산품가격이 떨어져 두가지 가격변동효과가 상쇄되었다면 평균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커다란 변화없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험하는 물가에는 차이가

있다. 소득수준이 같더라도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서는 피복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물가고를 느끼고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피복비의 부담이 적어 피부로 느끼는 물가고는 적을 것이다.

물가지수에는 각 상품마다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본 중요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그 가중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가중치의 정도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구입횟수가 빈번한 품목의 가격변동이 더 민감하게 된다. 예컨대 일정 기간에 쇠고기 값이 5%, 콩나물과 두부가 각각 20%씩 올랐다면 일반소비자는 이들을 단순평균하여 15%정도 올랐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은 쇠고기가 130.1, 콩나물이 4.2, 두부가 3.7로 평균 상승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품만을 기억

하기 쉽고 등폭이 적거나 떨어진 상품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소비여건에서도 체감하는 물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즉, 사치스런 과잉소비풍조가 만연되면 실제보다 훨씬 심한 물가고를 체감하며 상대적인 소득저위를 느끼게 되고 비싼 물건과 값싼 물건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비싼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까지도 물가상승을 느끼게 된다.

#### 4. 물가지수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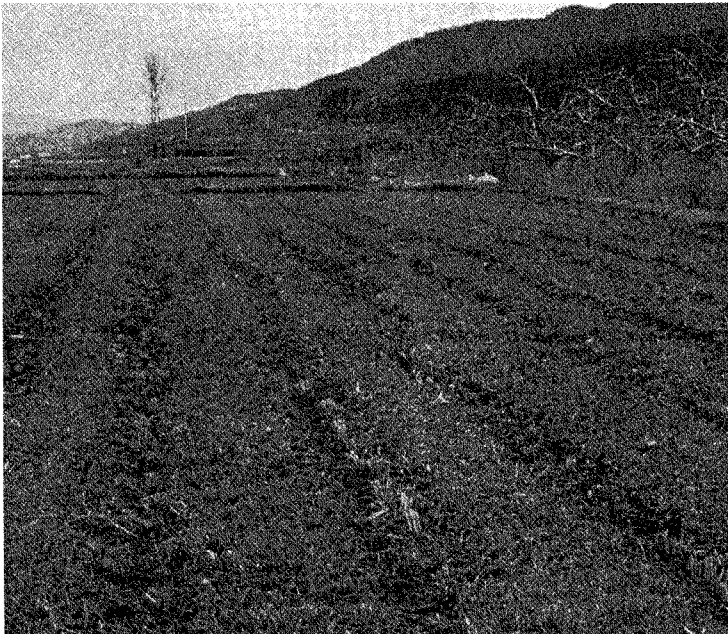
물가지수는 각 지수별 분류특색,

지수작성 목적을 고려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어떤 품목의 물가변동이 전체물가상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기여도란 어떤 품목의 가격변동이 총지수를 몇%포인트나 변동시키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간편법에 의한 기여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편법의 기여도(%·P)=(개별품목 가중치×변동율)는 총가중치이다.

물가지수는 각종 자료의 디플레이터(Deflator)로 많이 사용된다.

**도매물가지수의 경우  
GNP 통계의 디플레이터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질 대출금리를 구하고자 할 때  
도매물가지수의 상승율을  
이용한다.**



즉, 도매물가지수의 경우 GNP통계의 디플레이터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질 대출금리를 구하고자 할 때도 도매물가지수의 상승율을 이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명목임금을 실질임금으로 환산한다거나 도시가계 소득의 실질치를 구할 때 널리 이용된다.

농촌물가 및 임료리지수는 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농가 패리티 지수를 작성하여 농·공산물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데 지표로 이용된다.

특히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념할 것은 이 지수는 중요도가 큰 품목만을 선정하여 편제하고 있으므로 국내 물가변동이 전부 반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급히 거래량이 많아지고 물건의 변동폭이 심한 경우 물가지수가 다소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도매물가지수에는 소매가격, 증권, 부동산가격, 서비스 운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자물가지수와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기준시점으로부터의 상대적 가격변동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농촌물가 및 임료리지수를 이용할 경우 유념할 것은 농가구입가격 지수가 공산품가격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형성되는 품목인 가축류 등도 포함되므로 그 지수의 상승율을 농가가 구입한 공산품의 가격변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예컨대 가축값의 등락이 심했던 1982년의 경우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가축류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커서 구입가격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양계**